

편집자의 말

코로나 19(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참으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1세기 전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찾아온 이른바 ‘스페인 독감’은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초래하는 대역병이었던 동시에 세계적 패권의 전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꼭 1세기 후 세계는 또 다른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이 어떤 방향일지는 누구도 선불리 말하지 못하면서도 모두들, “앞으로의 세상은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옛 루스의 연대기 작가들은 이민족의 침입이나 역병 같은, 쉽사리 제압할 수 없는 큰 재난을 “신이 내리는 징벌”이라고 여겼다. 폴로베츠 군대의 침입 앞에서도 몽골 군대의 침입 앞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였다. 예컨대 『원초연대기』는 1024년 루스 사회가 기근과 폭동에 휩싸였을 때 키예프 대공 야로슬라프가 “신은 죄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땅에 기근이나 역병이나 한 발이나 또 다른 어떤 징벌을 불러일으키신다.”고 말했다고 쓰고 있다. 또한 1093년 폴로베츠 군대의 침입으로 루스 사회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때 연대기 작가는 “이는 우리의 크나큰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로서, 우리의 불법이 첩첩이 쌓여 왔기 때문이다.”라고 쓴 데 이어 “이것은 필시 우리로 하여금 제 정신을 차리고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신의 채찍일 것”이라고 썼다.

종교적 담론은 아니지만, 고난에 직면한 인간사회의 자기반성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는 논의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무수한 바이러스 대군의 침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찢절매는 호모사피엔스도 “이것은 우리의 생활방식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자연의 징벌이다.”라고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론장에서의 그 어떤 절박한 호소로도 가능하지 않았던 문명의 전환이 감염병의 대대적인 침입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이에 저항하는 힘이 너무 큰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다. 다만 이번의 전환은 그 규모가 어떠하든, 전쟁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초래한 대대적인 유행사태를 수반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인간의 죄책감이 덜어질 수 있는 것일까?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감염병 전파로 인해 요동치는 사이에 유라시아 대륙의 중간지대는 한동안 세계인의 이목에서 멀어져 있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을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듯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곧 바뀌었다. 러시아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한 규모를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이러한 사태 속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도 미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세계인들은 코로나 19 발발을 계기로 한 미국-중국의 대립 심화나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반감의 분출에 비해 유라시아 대륙의 러시아권, 구소련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연장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 사회내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국제사회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각자도생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고, 어쩌면 러시아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적 차원의 패권변화 혹은 패권전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 당장 한반도만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이 시급한데 러시아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듯이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표면만을 보고 너무 가벼이 사태를 판단하지는 말기로 하자. 차분하게 지혜를 모아가는 속에서 큰 해법이 나올 것이다.

이같이 다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사 속에서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긴 호흡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성찰하며, 잡담(雜沓)과 피상으로 얻을 수 없는 깊은 진실을 찾아내고자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삶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연구』 제30권 제1호는 코로나 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전문 연구자들의 정진으로 태어난 아홉 편의 옥고를 내놓는다. 문학논문 다섯 편, 어학논문 두 편, 사회과학 논문 두 편이다. 분량으로 보나 기울여진 노고로 보나 논문 하나하나가 다 역작이라고 할 만하다. 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래에서 각 논문들에 일별을 보내 본다.

톨스토이는 한국인들에게 고매한 덕을 갖춘 친한 어른 같은 이름이다. 러시아문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 톨스토이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100년도 더 이전부터 톨스토이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수용해 온 톨스토이는 도덕적 교훈

의 설파자, 계몽적 인생론의 저자였던가 보다. 정작 그의 소설작품 가운데 가장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아온 『안나 카레니나』의 인기는 그 명성에 비해 오랫동안 저조했으며 2017년 이후에야 인기가 치솟게 되었다. 문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다소 특이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여하튼 한국의 독서 대중이 도덕교사 톨스토이, 청소년 교육자 톨스토이를 넘어 예술가 톨스토이에 이르렀다니 반가운 일이다. 김진영의 논문 「한국어로 읽는 『안나 카레니나』: 2017년 이후 독서계의 지형도와 새로운 번역의 가능성」은 이 현상을 짚어가면서 2017년 이후 출판된 『안나 카레니나』 한국어 번역본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 주제를 직접 연구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은 2017년에 갑자기 인기가 치솟은 원인에 대해 젠더관계의 새로운 풍향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등 여러 가지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의 소개로 그것이 한 TV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임을 알게 되니, 이는 문학수용의 사회사와 관련하여 이해할 만한 하지만 신기한 경험이라고 하겠다. 김진영은 2017년 이후 출간된 『안나 카레니나』 한국어본 6종을 비교 검토하면서 번역과 해석의 문제, 문학작품에서 각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에피그라프, 소설 첫 문장, ‘카레닌의 귀’ 부분, 승마장 장면 등 세부 사항에서 6종의 번역을 비교 검토한다. 글쓴이 자신은 이러한 작업이 “번역의 우열을 논하기 위함은 아니고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대표적인 장면들을 통해 톨스토이 작품의 이해와 또 다른 번역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원문과 여섯 종의 번역문, 원문 문장에 대한 분석을 읽다 보면 원문 그대로의 톨스토이를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일게 될 것이다.

박선영은 전기문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들어서서 전기문학을 ‘자서전(auto-biography)’, ‘반(反)전기(anti-biography)’, ‘위(僞)전기(pseudo-biography)’라는 하부 장르로 분류하고 장르를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연전에 파스테르나크에 대한 반전기 저작들을 검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위전기에 대한 고찰작업의 일환으로 「‘시’와 ‘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僞)전기: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회상록을 중심으로」를 집필하였다. 박선영은 전기는 태생적으로 사실성과 허구성이 혼재해 있는 ‘하이브리드 장르’라고 보지만 그 중에서도 “팩트의 의식적인 가공, 더 나아가 조작 및 창작의 의도적으로 활성화된 저작”을 전기의 새로운 하부장르로서의 ‘위전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되고 있는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회상록은 “타인

의 삶을 묘사하는 회상록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다수 삽입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의 『중국 그림자』와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회상록’이되 예술적 가공이 지배적이며”, “‘은세기’ 러시아 문학계에 대한 예술적 소묘이자 저자의 문인 지인들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이고도 비사실적인 초상전기”라고 규정된다. 문학 전공자 가운데는 ‘삶 그 자체’가 아니라 ‘미학화된 삶’, ‘예술적 삶’을 우위에 뒀으로써 “예술적 공상이 실제보다 더 믿을 만하고 진실한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바노프의 위전기 같은 장르의 저작에서 대상화된 인물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작가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가, 작가는 작품 전체를 온전히 창작할 역량이 되지 않아서 이 같은 위전기, 가짜회상록을 생산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에도 답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가 있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의 윤리는 없는 것인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답이 어떻게 나오든, 자서전, 회상록은 역사자료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사실, 위전기 자체가 아주 오래된 장르이고 중요한 작품의 경우 그것이 쓰인 시대, 쓰인 목적이 분석대상이 된다. 위전기는 그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 곧 진위분석의 차원을 넘어서서, 위전기의 저자가 어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세상을 향해 발언하고자 했던가라는 물음 아래서 지성사 혹은 심성사(心性史)의 연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서(僞書)의 사회사는 그 자체가 흥미로운 연구분야인 것이다. “조국 러시아를 육체적으로는 떠났으나 정신적으로는 떠나지 못했던 망명자들은 스스로는 익명성 속에서 사는 것을 즐겼으나 자신들이 회상하는 ‘은세기’의 유명 인물들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억해 내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은세기’를 신화화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이 논문의 진단은 이바노프의 위전기가 태어나던 무렵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정신적 양수(羊水)가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어떤 경우이건, 그것이 위전기라는 것을 읽는 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사망하고 12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우즈베키스탄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을까. 경제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박지원의 논문 「우즈베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경제적 기대효과와 부정적 여파의 분석」은 이러한 궁금중에 대

해 답을 주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CIS 지역의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에 취임한 마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과감한 대내외 개방정책을 선택하여 전임자와는 다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많은 관찰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기도 하다. 논문에 의하면 개방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음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전임 카리모프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러시아와의 거리두기를 지속했고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가입하였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소비에트 해체 이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 헤게모니를 경계해 온 것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수세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이웃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남쪽의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개선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효율적 대외정책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도 경제발전과 자유화를 포함한 포괄적 사회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EAEU 가입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러시아 노동시장에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며 디지털 경제를 육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각기 비관세장벽, 두뇌유출, 디지털 경제의 러시아 의존 심화 등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각 주체들의 지혜로운 협력이 원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회에서 소수자로 자리매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소수자가 된다. 자기 사회의 주류에 속했다가 다른 사회에 가서 소수자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했던 한 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수자였던 다른 문인을 불안과 부조리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읽고 평가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진진한 인문학적 연구대상일 것이다. 박혜경의 논문 「나보코프의 카프카 문학 강의: 문학적 리얼리티에 관한 고찰」은 제정러시아의 특권계급 출신으로 러시아 혁명 후 망명객의 고단한 삶을 살았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프라하 계토에서 살았던 독일계 유대인 카프카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의 작품 「변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박혜경은 이 작업이 “나보코프의 또 다른 문학 창작의 과정으로서 그가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을 확인해 줄 수 있게 해주며” “나보코프에 의해 재창조되

는 카프카의 예술세계를 확인해 현실(reality)과 환상(fantasy)의 경계, 객관적인 리얼리티와 주관적인 리얼리티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 창조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논문은 문학 강의록을 또 하나의 문학텍스트로 삼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나보코프는 카프카를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유럽 작가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변신」이나 『성』 같은 작품들을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듯 카프카의 「변신」을 아주 높이 평가하였다. 그가 「변신」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것이 환상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리얼리티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보코프는 「변신」의 세부묘사에 주목하여 세부사항들이 의미하는 바를 다른 평론가들보다 훨씬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곤충학에 일가견이 있었던 그의 지식이 분석에 일조하였다고 한다. 이 논문에 근거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나보코프는 「변신」이라는 환상적 이야기 속에서 가족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의 비정함을 읽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망명 문인 나보코프가 비참한 상태에 빠진 그레고르 잠자를 박정하게 대하는 가족에게서 인간사회의 매정함을 더욱 비통한 심정으로 절감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각각의 독자는 나보코프의 독법에 대해 각기 자신의 독법을 또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어학 전공자로서 송은지는 러시아어의 상(相)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호 『러시아연구』에는 「러시아어 명령문에서의 상: 불완료상과 상호주관성」이라는 제목의 긴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명령은 화자와 청자가 발화사건 뿐 아니라 서술사건의 참여자로서 이중으로 관여하는 화행이므로 화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화참여자들의 정서적, 인지적, 태도적 조율이 중요하다. 따라서 명령형에서는 상호주관성 표현이 매우 중요한 문법적 맥락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상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화자-청자의 상호주관성이 어떻게 상 선택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명령이라는 양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료상은 화자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무표적 상이라고 한다면, 불완료상은 상성(相性)이 약화되는 대신 화자-청자의 관계적, 인지적, 의지적, 정서적 조율이 이뤄지는 대화적 조정과 타협의 장이 된다고 한다. 송은지는 불완료상의 화용론적 가소성(可塑性)을 확인하기 위해 불완료상, 완료상 사이의 관계를 역동적, 진화적,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명령형 상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일반 평서문이나 의문문까지 예시하여 상호주관성과 상의 관계, 한정성과 상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여러 문헌을 통해 논지를 정리한 다음 러시아국립코퍼스에 서의 상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상호주관성과 명령형 불완료상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풍부한 예문들이 제시됨으로써 논지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브게니 오네긴」은 러시아 오페라 가운데 한국 청중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는 「보리스 고두노프」가 「예브게니 오네긴」보다 더 자주 공연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다. 「보리스 고두노프」는 1989년과 2017년 두 차례 제작되어 무대에 올려진 반면 「예브게니 오네긴」은 다양한 형태(오페라 콘체르탄테, 정식 공연)로 여러 차례 공연되어 왔다. 사실 푸슈킨의 원작 『예브게니 오네긴』 자체도 운문소설이라는 특징 때문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일단 한국어 번역이 이루어진 후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페라화한 『예브게니 오네긴』의 구성과 대사는 원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다. 신영선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의 리브레토 연구」는 원작과 오페라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리브레토를 극작술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문학적 원천이 오페라 무대에 적용되는 원칙과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글이다. 이 글은 차이코프스키 자신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의 리브레토는 인물의 설정과 인물들의 음악적 비중, 주제, 인물의 행동성과 내면성, 극 전개의 시간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파악한다. 원작에서와 달리 오페라에서는 렌스키가 비장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영웅으로 등극하여 음악적으로 오네긴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음에 주목하는 독자-청중이라면 이 같은 분석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필자 신영선은 차이코프스키가 이 작품을 오페라가 아닌 ‘서정적 장면들’이라고 불렀으며, 사건들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성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브게니 오네긴」이 오페라 콘체르탄테로 자주 공연되는 데는 그 같은 작품 자체의 지향성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차이코프스키의 리브레토는 푸슈킨 원작의 인

물과 사건 설정에 강조점을 달리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도 활용하고 있고 그것이 이 작품을 공연예술의 한 걸작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밖으로는 크림 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으로 인해 서방의 강경한 제재를 겪는 동안 러시아 경제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을까. 특히 지방경제는 어떠한이었을까. 염동호의 「러시아의 지역 산업구조 변화 분석: 특화계수와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는 푸틴 집권 3기(2012~2017)에 나타난 러시아의 연방관구별 지역총생산을 토대로 삼아 지방별 비교우위산업의 변화와 고용확대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이 글은 경제적 수요의 관점에서 지역경제 성장론을 토대로 8개 연방관구별 지역 산업의 구조 변화를 살피기 위해 산업별 지역총생산, 종사자수, 노동생산성의 특화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비교우위산업의 변화와 고용창출효과 및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역정책은 소련 해체와 체제전환을 겪으면서 격차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푸틴 정권 들어 기존의 ‘지역 간 격차해소 정책’을 ‘지역거점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일부 거점 지역의 개발’을 통해 주변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지역 자체의 경제발전’으로 중심축을 이동하여 지방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를 이 논문은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중앙-지역 간 큰 구조변화는 없었으나 산업구조에서는 지각변동이 확인되어 제조업이 도소매업을 밀어내고 제1의 산업부문으로 올라섰다. 러시아의 제조업 몰락을 통탄하던 관찰자나 당사자들에게는 일단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산업별, 지역별 성장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성장산업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간 격차해소라는 정책목표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인지 독자의 입장에서 궁금해진다. 이 글을 통해 러시아 경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지방도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 정책당국자들이나 일반 독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각 지역의 경제사정을 밝은 눈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근대는 우울함을 발명했다고 스스로 믿는 시대였다. 근대인은,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현대인도 우울하다. 러시아의 근대는 이 우울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언어화하고 있는지, 병리 현상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

었는지, 이병훈의 논문 「러시아 멜랑콜리의 탄생: 뿌쉬킨의 저작을 중심으로」에서 읽어볼 수 있다. 이병훈은 멜랑콜리라는 의학용어가 푸쉬킨(논문에서는 일관되게 ‘뿌쉬킨’이라는 표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편집자의 말」에서는 이 글 자체의 일관성을 위해 ‘푸쉬킨’으로 표기한다) 시대에 와서 정확하게 이해되고 사용되었다고 본다. 푸쉬킨 이전에도 멜랑콜리라는 말이 쓰였으나, 이 말은 카람진 작품에서 보듯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정신의 요소’로 이해되어, ‘슬픔의 치유자’로 여겨졌다. 또한 주코프스키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에 기반을 둔 멜랑콜리 개념을 종교적, 철학적으로 승화시켰지만 멜랑콜리에 대한 현실주의적 해석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1829년부터 멜랑콜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푸쉬킨은 멜랑콜리라는 의학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러시아인의 삶, 정신, 정서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문학용어로 변용시켰다고 이 글은 보고 있다. 이병훈은 1829년부터 푸쉬킨의 저작, 편지에서 쓰인 멜랑콜리(명사형 및 형용사형)의 용례를 분석한 후 그의 멜랑콜리 이해는 그 후 러시아의 정신의학에서 이 말이 사용된 용례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1835년에 출판된 니키틴의 『의료사전』이나 1863-66년에 처음 출판된 달리(달)의 『러시아어 사전』에서의 ‘멜랑콜리’ 설명이 푸쉬킨의 그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문어로서의 러시아 근대어를 확립한 푸쉬킨의 영향력은 매우 광대하고도 넓다. 이병훈은 멜랑콜리라는 근대 정신의학 용어의 용법에서도 그 같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의 작업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하경은 “Does Old Russian Have V-to-T Movement?”라는 제목의 어학 논문을 게재하였다. ‘고대러시아어’(‘고대러시아어’라는 용어는 이 논문의 것으로, 「편집자의 말」에서는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의 구문과 통사를 다룬 논고인데, 편집자로서는 이러한 종류의 논문이 『러시아연구』에 얼마 만에 실린 것인지 잘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만큼 『러시아연구』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고대러시아어’에서 ‘동사의 시제핵 이동(V-to-T movement)’이 존재했는가?”라는 문제를 살피고 있다. 그리스어나 이탈리아어 같은 영주어(零主語) 언어(인칭과 수에 따라 동사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주어 없이 동사변화만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구조의 언어를 말한다 - 편집자)에서는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필수적임에 반해 부분적 영주어 언어에서는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그 같은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현대러시아어는 비(非)영주어 언어이고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고대러시아어’는 일관된 영주어 언어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언어에서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이 논문의 검토사항인 것이다. 논문은 11-12세기 문헌들인 고대노브고로드 자작나무 문서들과 『루스 법전(Русская правда)』, 그리고 『원초연대기(Первоначальная летопись)』의 문장구조를 검토함으로써 이에 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부사, 외현적 주어 같은 구성소와 동사 간의 상대적 어순에 기반하여 동사의 이동을 진단하게 되는데, 이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고대러시아어’의 경우, 『루스 법전』과 구어적 표현을 담고 있는 문헌들인 고대노브고로드 자작나무 문서들은 동사가 하위부사 등의 구성소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어순을 보이고 있다. 즉,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 문어의 성격이 더 강하고 고대교회슬라브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연대기에서는 반대의 어순이 다수 나타나는 바,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존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대러시아어’는 일관된 영주어 언어, 부분적 영주어 언어 등 어떤 언어 유형에도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 언어들의 혼합적 상태에 있었다고 이 논문은 파악하고 있다.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이 같은 혼합 상태가 청산되고 비영주어 언어인 현대러시아어로 전환된 것일까. 러시아 문명 및 문화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어의 특질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어 역사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언어적 특징과 그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호에는 역사학 논문과 서평이 게재되지 않았다. 역사학 전공자들께서도 『러시아연구』에 좀 더 살뜰한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야를 막론하고 러시아-슬라브-유라시아 연구와 관련된 좋은 책을 읽은 분들은 『러시아연구』에 서평을 게재함으로써 누구나 그 배움을 공유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필자들과 독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지혜를 모아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 『러시아연구』의 길이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편집위원장 한정숙